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며 국제평화의 가교가 되다

소카대학교

프리실라 칸시마 시네파 에디슨
국제평화학 연구과
국제평화학 전공 석사과정 2학년
가나 출신



제가 다니고 있는 소카대학교 국제평화학 연구과(SIPS)는 슈퍼글로벌대학 창
성지원의 일환으로써 2018년에 개설된 새로운 대학원 과정입니다. 외국인 유
학생이 많아 2019년도 재학생인 28명은 15개국·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
다. 8명의 교수님도 모두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교육 언어는 영어로, 국제색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크게 '국제관계론'과 '평화
학'의 두 과목을 중심으로 '국제평화학'을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
회가 대립하는 원인이나 해결책 등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종합
적인 관점을 기르는 것이 이 학과의 특징입니다. 지구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시야를 넓히면서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나대학교 대학원생 시절 학
과장님의 추천으로 소카대에 교환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카대학교에
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지닌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한
국제학생기숙사는 일본인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였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의 넘치

차세대를 짊어질 글로벌리더의 모습, 국제화를 체현하는 사람들 /

는 학생들이 많아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저의 열정을 열심히 들어준 것도 친구들이었고, 제가 교환유학을 마치고 가나에 귀국했다가 다시 소카대에 돌아와 SIPS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것도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국제평화학 연구과 1,2기생

저는 '평화 세계시민론' '아프리카 국가 건설' '내전과 평화 프로세스' 등의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데,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기술과 국제간 조직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달성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SIPS 수업은 주로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것을 배우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열심히 학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지구 규모의 문제에 관심을

차세대를 짊어질 글로벌리더의 모습, 국제화를 체현하는 사람들 /

가질 수 있었고 지속가능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심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소카대가 주최한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7) 포스트이벤트 등의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있어 날마다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직원 분들의 조언이나 임기응변의 대응 등을 통해 케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카대에는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상담에 응해주시는 교수님들도 매우 든든한 존재입니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해 국제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문을 깊이 배워가겠습니다.



학습공유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